

#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홍지희 중장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환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환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45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7월 15일 금요일	Issue No.	1745
		Date	May 30, 1969: Fri.

## 비에트콩이 48시간 정전

(사이공 5월 29일 밤 에이피) 민족해방전선의 석가탄생일의 48시간휴전이 29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되었다. 그전야 해방전선군은 남비에트남 11개소를 포격하였는데, 피해는 경미하였다. 연합군측의 정전은 30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계속된다. 29일 미제 25사단의 병력 700명은, 사이공 북방 28마일에서 육전기간중의 전담회의때문에 집결하고있는 해방전선군을 습격, 적어도 50명을 죽였다. 미군의 손해는 전사 1명, 부상자 7명이었다. 공격개시전에 미군은 비행기의 위성기도 해방전선군에대해서 양복을 권고하고, 또 비전우월은 물러가도록 요구하였다. 약 200명의 부녀자가 물러갔는데, 해방전선군은 기권용, 라켓트, 수류탄의 공격을 개시, 이에대해서 미군은 탱크, 장갑차를 동원하여 공격하였다. 남비에트남군사령부의 발표에의하면, 29일 오후 7시까지 해방전선측의 휴전 위반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 파리 확대화평회의 진전개무

(파리 5월 29일 밤, 에이피) 파리 확대화평회의 제 19회 본회의가 29일 열렸는데, 주요문제인 철병과 정치적 해결에대해서 사상방이 각각의 입장을 고지하였기때문에 아무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아.반.라우 북비에트남자석대표는 "땃지미대표는 니슨제안과 해방전선제안에는 흡사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양자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라고 전변의 땃지방언을 공격, 또 찬.주.김해방전선수석대표는 니슨정책이 미북대부를 포함하여 전체계의 비난을 받고있다고말하고, 미국의 예로서 린지 뉴욕시장, 켄네디상원의원의 발언과 육전대학생의 반감을 들었다. 땃지미수석대표는 이에대해서 "비에트남의 정치적 해결은 정식적인 선거로 선출된 정당한 사이공정권의 전면적인 참가와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하였다.

## 박 추대통령, 비에트남 문제를 토의

(서울 5월 29일 밤, 중동) 한국방관중인 권.반.추 남비에트남대통령은 28일 저녁 대통령 권저도 박정희대통령을 방문하고 회담하였다. 이 약국수 회담에서는, 6월 4일의 니슨대통령과 추대통령의 피트우케이 회담을 앞두고, 최후의 단계에들어간 비에트남 회담고진, 남비에트남의 전후복구 복용에의 한국의 참가등에대해서 김이 이야기한모양으로 회담후에 대통령 권저의 대변인은 "세계와 아세아의 정세, 비에트남전쟁의 현상과 급우의 예측에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라고 말하였을때문에,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였다. 또 회담에서는 추대통령이 박대통령을 남비에트남에 초대하고, 박대통령은 "적당한 시기에 방문하겠다" 고 수락의 의향을 말하였다.

(제 1 번)



### 오끼나와 문제.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 시사

(워싱턴 5월29일밤, 공동) 일본 민사당방미의원단의 소네에끼단장은 28일 오후, 깃신타미대통령 명보좌관을 오끼나와문제에 회담하였다. 동보좌관은 이 회담에서 백기지의 래세풍의 구제문제에서는 명인을 피하였는데, 미국측의 숙정한 생각을 일본에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오끼나와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소네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깃신타미보좌관은 오끼나와 반환을 시사하고 모든 문제에서 "미국이 예를들어 어느 문서에 서명하라고 일본측에 요구할 생각은 없다. 미국 일본 양국의 급우의 수정 경제를 생각하면, 너무 무리를 하여 그 결과, 일본의 정책에 혼란이 생기려는 것은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또 "일본측이 미국의 요청을 피하고, 미국은 일본의 정지가 지금 오끼나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상오미제가 회담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소네씨의 이야기는 "깃신타미씨가 "어느 문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일반론으로서 말한 것으로 이것이 일본측의 주장하는 발권주의 기지사용에 대한 특별한 조약은 불필요하고, 현행안보조약의 한계적 운영으로 충분하다는 이해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백기지의 자유사용문제에서는 "기지의 래세에 대해서도 미국은 전대로 사용을 자유로 하여야 한다는 강경한 생각은 하지 않으리라" 라고 명백히 하였다. 소네씨는 전체의 인상으로서 "미국은 아시아의 정책중에서 일본을 극히 중시하고 있으며, 그 관점으로 오끼나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오끼나와 문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스나이다전미국무성 일본 부장에 마피고있다오만한 것으로 보아도, 아이지 외상의 방미의 단계에서 미국의 구체적 방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 오끼나와의 무제한 사용은 상식이다

(워싱턴 5월29일밤, 공동) 미국민주당의 바르샤 상원의원은 29일, 상원에서 연설에서 오끼나와 문제에 대해서 "만일 미국이 아세아 지역의 안전을 보장할 자질이면, 서태평양에서 가장 큰 기지인 오끼나와를 계속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안전하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이 극동의 방위를 맡는 것으로서 일본은 재군비의 중립으로부터 벗어나고 국내 경제의 성장과 근대화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오끼나와 기지의 휴제안 사용의 문제에 세론을 주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 오끼나와의 시정권을 인정함으로써, 극동의 다국간 방위 기구에 차차 일본이 참가하고, 이것을 미국이 밀어줄 수가 있고, 미국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면, 오끼나와의 반환을 지지하겠는데, 실정은 그러치 않다.

### 나하서 준항만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

(나하 5월29일밤, 공동) 임금인상을 사하고, 22일부터 동맹파업에 들어가 있는 오끼나와 준항만 노동조합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으로 들어가, 투쟁을 더 강하게 하기로 하였다. 동노동조합은 미군과 정부 계약하고 있는 회사측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서태까지에 72시간 파업을 두 번 하여 왔는데, 27일의 투쟁 위원회에서 회사측에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술 회담을 결정하였다. 미군 관계에서 무기한 파업을 결행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나하 군항의 비에르넬 양 미군물자수송이, 대륙 혼란을 보이고 있어서 미측을 더 자극하면 문제가 더 악화될 사태가 걱정되고 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 핵계획회의 개막

#### 소련의 공격억제를 도의

(론돈 5월29일밤, 에이피) 테아드미 국방장관을 마지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가 7개국 국방장관에 의한 핵계획회의가 29일 론돈에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핵력에 대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2일간 열린다. 참가국은 미국, 영국,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도의 자료가 되는 것은, 서독약국이 작성한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의한 핵력에 의한 소련의 공격억제라는 최요기밀계획, 이권의 영국의 연구에서는 구라파가 전쟁이 되는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핵전술병기를 사용, 소련이 이에 보복하면, 구라파는 전쟁한다는 결론이었다. 서독이 전쟁이 되는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단 억제전술이 고안되어 (1) 피해가 적은 지역에서, 소련에 경고하는 목적으로, 시위폭탄을 사용한다. (2) 소련군의 침입로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 핵중핵탄과 원자지뢰를 사용한다 등의 제안이 있었다. 영, 서독간의 작성자의 인사로 인하여 영국방장관은 "소련의 공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주병력으로 소련이 수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수입내에 핵병기를 사용하든가, 그러치 않으면 함복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동국방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소련상주병력은 북대서양조약기구군에 대해서 보병이 두 배 이상, 공군도 두 배 이상, 장갑차가 약 세 배가 된다고 한다. 이리 국방장관은 이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상주병력의 강화를 오히려 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1972년까지 구라파 주류병력 1만 명의 3분의 2를 귀국시킬 계획, 미국측에서는 단 동맹제국도 캐나다는 따르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 28일 부트셀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 회의에서 테아드미 국방장관은 캐나다에 대해서 재고의 뜻을 요망, "지금들 구라파 안전보장에 대한 우리의 참가의 뜻을 감소시킬 때가 아니다" 라고 역설하였다.

### 역사상 최저의 대의원조 예산을 부는 요청

(워싱턴 5월29일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28일, 국회에 대해서 26억 불의 대의원조 예산을 요청하였다. 이 예산액은 작년 국회에서 가결된 17억 불에 대해서 9억 불 이상 넘는 것인데, 작년도의 존슨전대통령의 요청액에 비교하면, 6천 3백만 불 감소되고 있다. 닉슨대통령은 몇 세지중에서 "이 요청액은 전후 대외경제.군자원조 계획이 시작된 이래 최저의 액수이다." 라고 설명, "현재의 기본적인 요구를 채우기 위해 이것만은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대의원조 예산의 내용은 저개발국에 대한 경제원조 22억 불, 해외군사원조 2억 7천 5백만 불, 저개발국에 대한 민간우자의 진흥을 위한 공사원조 7천 5백만 불로 되어 있다.

### 도이 북비에르넬 대표, 소련을 방문

(모스크바 5월28일밤, 공동) 27일 밤로 된 바에 의하면, 비에르넬 회담의 스안.오이 북비에르넬 수석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 동일 갖세우.소련공산당서기와 회담하였다. 동대표의 모스크바 방문이 아노이에 양하는 도중인가, 그러치 않으면 소련지도자와 협의하기 위해서 인가는 모르는데, 만일 추자라면, 소련이 비에르넬 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주목된다. 도의 대표는 작년 5월 마리에 양하는 도중, 모스크바에 들른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되는 방문이다. 동대표는 모스크바에 체재중, 부테지네르서기장동 최요수뇌회도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 전쟁 확대화에의 국민의 불안 퍼진다

(외신은 5월26일반 공동) 미군사상자의 급증을 두려운 남비에르넬의 멤버.입에서의 전수를 기피도 평화에의 기대와는 반대로, 비에르넬전쟁이 다시 구렁텅이에 빠지지않나하는 불안이 미국민간에 퍼지기시작되었다. 새조사들 보아도, 국민의 불안을 지적하고있으며, 닉슨대통령의 비에르넬정책에의 비판일층확대라는 결과를 보이고있다.

최근의 애미스톤조사에의하면, 미군의 5만명전 퇴출 지지하는자 49%에비코해서, 반대는 34%이며 동조사는 "전쟁에대한 국민의 걱정감이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 라고 전제하고, 미군의 사상자가 너무나 많다 (28%) 라는 전쟁부정론이 전쟁긍정론을 크게 더러미고있는것을 지적하였다.

또 갠럴조사도, 닉슨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직후의 59%로부터, 5월에 64%로 올라갔는데, 반대도도 9%로부터 14%로 급이 올라가, 그의 최대의 원인이 비에르넬전쟁에의 불만에있다는것을 명백하게 나타내고있다. 연네티민주당사원의 원이 멤버.입의 전수를 "부의미, 무책임" 하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청년을 조국에 불어넣어라" 라고 닉슨비판을 시작한것도, 이따한 서민감정의 움직임을 잡고하는 일이다. 정부는 연네티의 원에 반론하고, "사상자가 늘고있는것은 애방권원의 중세적 화에의한것으로, 우리측으로부터의 전쟁중가예의한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메아드국방장관은 "미군의 사상자를 최소한으로 도두고, 적에 군사적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변명하였다. 이발선은 적이 공격을 강하게하면, 용하지안들수없다는 것이다.

### 뱃나는 대성과올리고 아플로 1호 착수

(대평양상 주립스온함상에서 5월26일반, 에이미) 거의 원색에 가까운 단원근비행용 원수만 아플로 1호는, 최후의 착수에도 예정수역에 정류이 내렸다. 남태평양미명 사모아제도의 스스 이라도 판고함고 동남약400해리에 대기하고있는 외수선의 에이플로포함 주립스온으로부터 단지 3해리밖에떨어지지안은곳이었다. 착수시간은 26일 오후영시 52분 (아외이시간동오된 6시52분) 착수부터 약39분후, 스투워드, 양, 1서난의 3비행사가 주립스온에 승선할때까지의 모양은 레때비준으로 구미에 중계되었다. 착수의 순간 남태평양상에는 해가 뜨려고하고있었다. 3개의 타아산울덜고 내려오는 아플로1호의 추적등이 주립스온에서 볼수가있었다. 대대물노치지안고, 에리플러대가 울동, 해군의 구조원들이 우주선에 줄을 때려 수중에 뛰어들어갔다. 스투워드 선장의 지구상의 제1성은 "감사합니다. 군의에게 안심마라고 받아십시오, 새사람이 다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것이였다.

### 김 마르다연신 안과 수술 경과 양호

동지 외증양부서기점재무이신 김창수선생의 부인 김마르다연사께서는 그간 시야가 약해져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오든중, 의사의 충고로 안쪽 눈을 수술하셔야한다고해서 약섯주일전에 원병원에 입원 수술을하시고 약 일주일을 정양중 의원이셨는데, 수술의 경과가 조와 집에 나오셔서 받은 회복을 하고계시다고한다. 수술의 경과가 양호해서 췌지가 모다 기쁘게생각하고있다고한다. 아모속이 원익 되시기를 바라고있다.

동지 외증양부서기점재무이신 김찰수씨는 약 두주일전부터 전신이 몹시 아파서, 의사 여터분을 보고 받은 약을 시켰는데, 만은 효과를입지못하여, 췌지에게 큰 후미를 끼치고계셨는데, 지난 몇일전부터 약의 효력을 보아, 점점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계시다고한다. 아나님의 속복으로 조속이 원익하시기를 입만은 다 기원하고있다고한다.

